

15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486.67 (+53.42)	809.36 (+15.17)
금리 (연평균)	환율 (원/달러)
3.744 (-0.113)	1300.80 (-28.10)

정의선 회장
대영제국훈장 수훈
02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6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11월 16일 목요일

오산·용인·구리 등 5곳에 신규택지... 8만호 들어선다

국토부,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 인근도심 등과 연계 시너지 극대화 공원녹지, 지구면적 30% 내외 확보 선교통-후입주 실현 위해 교통개선



정부가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구리토평2, 오산세교 등 전국 5개 지구를 새 택지지구로 지정하고, 8만호 규모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구리토평2(1만8500가구), 오산세교3(3만1000가구), 용인이동(1만6000가구), 청주분평(9000가구), 제주화북2(5500가구)를 신규택지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리토평2는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수도권 주민들의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오산세교3은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하고 KTX(2025년 개통), GTX-C(공약사항) 등 철도교통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용인이동은 지난 3월 발표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인접해 IT 인재들의 배후 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지역

이다. 청주분평2는 청주오송의 산업단지 신설, 반도체 공장 증설 등 일자리와 함께 청주시 인구 증가세로 주택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다. 제주화북2는 제주 인구가 최근 10년간 15%나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주택 공급이 적어 계획적인 택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모든 신규택지 지구는 인근의 기존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개발해 기존에 부족했던 도시 기능과 인프라를 보완·분담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완성도 높은 통합 자족생활권으로 조성한다.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를 지구 면적의 30% 내외로 확보한다. 지구 전체에 걸쳐 하천 등 친수공간과 녹지가 도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를 선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지구 내 어린이집, 아이돌봄센터 등 보육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병원·학원·카페 등 지원시설이 한곳에 집적된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개발한다.

국토부는 모든 지구가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도로, 대중교통 노선 등을 신설 확장해 교통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선교통-후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신규택지 발표 직후 수립에 착수해 기존보다 최대 1년 앞당겨 지구지정 후 1년 내 확정할 예정이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해 국민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 '2023 감사 리더스 씨앗' 성료

메트로경제가 주최하는 '2023 감사 리더스 씨앗' 두번째 모임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동 페어몬트 엠베서더서울호텔 7층 아잘레아홀에서 열렸다. 은행을 비롯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여신전문회사 등 주요 금융회사의 감사 및 감사 관련 부사장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경제 위기인가'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관련기사 L4면> /손진영 기자 son@

美 물가 둔화에 긴축종료 기대감 국내증시 기관·외인 '쌍끌이 매수'

코스피 2.20%, 코스닥 1.91% 상승

미국 물가 상승률 둔화 소식에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국내증시가 상승했다. 기관과 외국인투자자들은 유가증권과 코스닥 두 시장에서 대량의 쌍끌이 매수세를 보여 달라진 시장 분위기를 반영했다.

15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3.42포인트(2.20%) 상승한 2486.67에 장을 종료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홀로 1조6120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423억원, 1조915억원을 순매수했다. 이날 기관의 순매수액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많았고, 개인의 순매도액은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컸다.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은 6333억원을 순매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보험업(-1.26%), 음식료업(-0.77%)을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했다. 운수장비(3.70%), 서비스업(3.39%), 기계(3.38%) 등이 크게 올랐다. 상승종목은 752개, 하락종목은 143개, 보합종목은 41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10개 종목에서는 전 종목이 상승했다. 기아(4.22%), 현대차(4.17%), 네이버(3.47%) 등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코스닥지수는 전 장보다 15.17포인트(1.91%) 오른 809.36에 마감표를 찍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1770억원을 팔아치웠고, 외국인은 1603억원, 기관은 132억원을 사들였다.

업종별로는 전 업종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섬유·의류(-1.27%), 방송서비스(-0.33%) 등이 하락했다. 통신서비스(3.96%), 반도체(3.30%), 유통(2.83%) 등이 큰폭으로 올랐다. 상승종목은 1268개, 하락종목은 294개, 보합종목은 67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10개 종목 중에서는 포스코 DX(-3.40%)를 제외한 전 종목이 상승했다. 알테오젠(10.38%), 셀트리온제약(9.46%), 레인보우로보틱스(4.90%) 등의 상승폭이 컸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의 투자심리 개선이 현·선물 동시 순매수로 나타나며 국내증시 상승을 견인했다"며 "특히 1만건의 계약 이상의 선물 순매수에 힘입어 기관의 차익거래 성 순매수까지 더해지는 모습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8.10원 내린 1300.80원에 마감했다.

/원관희 기자 wkh@

尹대통령, 美 APEC 참석차 출국... 다자무역 등 논의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 참석 청정에너지 전환 기여 등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2박 4일 일정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서울공항에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순방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 부부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장

호진 외교부 1차관,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의 배웅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자마자 동포 간담회를 첫 일정으로 APEC CEO 서밋 기조연설, 투자신고식 참석 등 현지 일정들을 소화한다.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다자무역체제의 복원을 역설하고, 각국 정상들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에 참석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와 국제연대 방안을 강조할 계획이다.

다음날인 17일에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두 번째 세션 '리트리트 회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경제구축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2면에 계속>

/박정익 기자 pathfinder@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윤 "한국, APEC 의장국 준비하며 기후위기·디지털 격차에 기여 강화"
▲ "尹 신호 받았다"… 인요한, 중진 결단 압박 /사진 뉴스스

▲ '비명' 5선 이상민 "국힘 입당 배제 안해"
▲ 민주 의원들, KBS 프로그램 보이콧 줄 선언



▲ 합참의장 후보자 주식거래·골프 논란에 여야 질타 쏟아져 /사진 뉴스스
▲ 輿論의 압박에 주류 "분란만 일으켜"… '용산발 메시지' 논란까지